

##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메일

---

유 경 희

---

**필**자는 오랫동안 PC통신을 통해서 전자메일(E-mail)을 교환해 왔고 또 전자게시판(BBS)을 통하여 정보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요즘 운영하고 있는 PC통신 서비스망으로 대표적인 것이라면 유니텔(Unitel), 천리안(Dacom), 하이텔(한국통신) 그리고... 수많은 서비스망이 있는데 대부분 전자메일과 게시판은 인기 있는 서비스임에 틀림없다.

전자메일로서 정보자료를 주고 받는 경우, 아주 효과적이기는 해도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하루에 한번씩은 꼭 들여다 보아야 그 효과가 유지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활이 어디 매일 매일 전자메일을 열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거나 복잡한 일이 생

기거나 하면 1주일씩 때로는 한달씩 전자메일을 읽지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뿐 아니라 받아본 자료를 다시금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해서 다른 자료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언제 어디에서 온 메일을 찾아 내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결국은 전자메일에 의한 정보는 아주 가벼운 정보교류 밖에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전자게시판(Bulletin Board System, BBS)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이것은 [내가 쓴 글]을 일반에게 또는 한정된 회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인데, 널리 알리는데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언어의 테러]적인 요소가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다. 정보를 널리 알리는 효과는 있으나 부작용이 있어서 시스템 운영자를 당혹케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인터넷에는 홈페이지란 새로운 정보매체가 있어서 종전의 전자메일이나 전자게시판과는 달리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개인서제]같은 것이라고나 할까...[개인 홈페이지]를 가지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IMF 기간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세차레의 국제회의에 참석하였다. 매번 명함교환을 해서 무려 100여장의 명함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서 3장의 불가리아 대표의 명함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전자메일 주소가 있다. 명함을 건네 주면서 전자메일로 연락을 하라는 것

이 일반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5-6명 정도는 자기의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 두고서는 그것을 보면 기관의 활동상황을 모두 간단히 알수 있다고 했다. 이제는 개인의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 주어야 할 시대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홈페이지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누구든지 첫번째가 개인의 존재가치를 재확인하는 수단 즉 개인의 인식도(Personal Identity)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말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PR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PR도 중요하지만 구멍가게의 PR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멍가게의 상품을 살티어니까...

한가지 실례를 들겠다. 우리 그룹 30여명이 한번은 [이동갈비]를 먹으로 갈 일이 생겼다. 어느 [이동갈비]집이 가장 좋은가? 알 길이 없다. 한분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동갈비]라는 검색어로 검색해서 바로 그집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즉석에서 흥정이 이루어졌으며, 버스까지 보내어 주었다. 이동갈비집의 홈페이지 덕으로 손님을 더 부르게 된 조그마한 예이다. 청와대에도 홈페이지가 있고 정부부처 및 산하단체에서 거의 모두가 홈페이지를 갖고 유효정보를 수록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청와대에 민원을 보낸 고교생이 무식한 교장 탓으로 징계를 받았다던가?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 사업체에서도 대부분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제는 [개인 홈페이지]를 가져야 할 시대가 왔다고 본다.

즉 개인도 PR을 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부부간의 사랑이 담긴 사진을 홈페이지에 수록한다면 전세계인이 그 사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랑스런 자식이나 손자들의 사진도 그렇다. 회원중 한분은 미국에 있는 손자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사진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를 보고 감동을 받은 일도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단편적인 정보를 모아서 집대성하는 도구로서 홈페이지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다. 수십권이나 되는 족보를 관리하는 일, 그리고 수십권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자료를 정리해서 축적하는 일, 시집, 소설, 논설, 수필집 등을 편집하는 곳으로서 홈페이지의 위력은 대단하다. 이것을 멀티미디어화한다면 더욱 그 위력은 커질 것이다.

오늘날 1인 1홈페이지란 말이 유행되고 있다. 이는 마치 1960년대 후반에 우리집에 전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던 시대와 비슷하다고나 할까...이것이 재택근무 즉 SOHO사업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아직은 전업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업으로서의 재택근무로서는 대단히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알려져 있다.

1인 1홈페이지란 말은 일본의 큐슈(九州)에 있는 오이타(大分)라는 곳에서 생겨난 말인 것 같다. 오이타의 현지사인 히라마츠씨가 주장해온 일촌일품(一村一品)운동의 영문판 용어가 One Village One Product 였다. 이 운동을 하던 당시에 여기에 코아라(Coara)

란 이름의 PC통신 서비스망이 구축되었을 때, One Person One Mail-Box란 말을 만들어서 전국에 유포시켰었다. 그러나 이것이 인터넷으로 변모하고 나서는 캐치프레이즈가 달라졌다. One Person One Homepage라고...

어원이야 어떻던 간에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한사람이 한개의 홈페이지를 갖는다는 것은 시장의 수요를 그만큼 증가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본인이 최근에 만든 단체 [인터넷 집현전]은 [우리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우리문화를 일역, 영역해서 전세계에 알리자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1인 1홈페이지를 가지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목표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는 한국인의 고담미화, 시조, 속담, 한시...등을 쉽게 풀이해서 영역해서 그리고 일역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세계인이 볼 수 있게 만들자는 운동인 것이다. 부수적으로 정보화축진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고...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더욱이 번역을 잘 하는 분들의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 모쪼록 한분 한분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드시고 그 주소를 알려 주시면 많은 분들이 찾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생산활동을 더욱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홈페이지]라는 수단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